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1

1부 유아기 인성발달과 부모상담

- ◆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상담의 기본 원리 6
- ◆ 유아기 인성발달 15

2

2부 인성덕목별 문제행동 이해 및 대처방안

- ◆ 함께하는 아이 24
 - : 협력하지 않고 혼자만 노는 아이
 - : 이기적인 아이
 - :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아이
- ◆ 정의로운 아이 33
 - : 거짓말을 하는 아이
 - : 고자질 하는 아이
 - :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
- ◆ 존중하는 아이 42
 - :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아이
 - :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아이
 - :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아이
- ◆ 자아가 건전한 아이 50
 - : 화가 많은 아이
 - : 자신감이 없는 아이
 - : 욕구 조절이 힘든 아이

3

3부 상담의 실례

-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 62
- ◆ 자기 마음만 있는 유아 68

4

4부 부록

- ◆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76
- ◆ 유아발달 체크리스트 81
- ◆ 가정환경조사지 93
- ◆ 상담일지 예 94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1부

유아기 인성발달과 부모상담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상담의 기본 원리

“인성은 개인의 심리적, 행위적 성향이며 성품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성취하고 도달해야 하는 인간의 자질과 품격이다.”

“미래사회는 협동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간상이 요구되며, 따라서 인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인성교육을 「마음 씨앗 가꾸기」 (김영옥, 2012)라고 하며,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 상담의 뜻

- 상담은 ‘목적을 가진 대화’(Bingham & Moore)로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에서 발전적인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구조화되고 허용적인 관계’(Rogers)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상담과 면담은 서로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나 면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face to face talk)을 뜻하며,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함(advice, counseling)을 뜻한다.
- 상담 및 면담은 상호간 언어 뿐만 아니라 표정, 옷차림, 몸가짐, 제스처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사소통이다.
- 부모상담은 유아의 성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와 교사가 가치관 및 교육관을 함께 공유하고 유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방법(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즉, 교사와 부모가 서로 대면하여 유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유아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 부모상담은 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유아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교사와 부모의 친밀한 관계수립 및 소통을 강조한다.

2. 상담의 기본 원리

① 마음 읽기

- 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를 들어, 유아교육기관의 시설 및 주변 환경, 교육방침과 목표, 행사를 비롯한 특별활동 내용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상담에 임하는 부모의 정서와 입장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부모는 유아의 기관적응, 또래관계, 발달 상태, 문제 행동 등을 교사와 상의하기를 원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문제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상담에 임한다.
 -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정서를 확인받고 싶은 심정, 자신의 생각이나 양육태도, 자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담임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상담에 임한다.

- 교사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걱정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마음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부모마다 성격이 다양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기대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 파악과 대처 방안을 세워두는 것도 필요하다.

② 친밀감 형성하기

-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정립을 위해 교사의 편안한 마음과 성심껏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교사와 부모는 동반자라는 인식과 함께 유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가 교사에 대한 인정과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진실해야 하며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③ 수용적 존중하기

-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사는 부모의 생각에 동조할 수 없는 경우라도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접적인 거부보다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언어적 방법이나 비언어적 방법으로 부모의 표현을 존중하며 반응해 줄 수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미소와 눈짓 등의 제스처어)

④ 적극적 경청하기

- 경청은 잘 듣는 것인데 부모의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부모 및 유아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대와 욕구, 문제 상황 등이 보다 명료해진다.
- 부모 및 유아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교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 및 훈련이 편견으로 작용하거나 교사의 건강 상태, 개인적 가치관 및 신념의 차이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공감적 이해하기

- 공감은 서로 마음을 깊게 나누는 과정이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므로 상담의 순간마다 정서적으로 아이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로서 부모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는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부모가 표현한 감정, 기대, 욕구가 무엇인지, 부모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교사가 부모의 정서를 반영하여 공감한 내용을 부모에게 재전달할 경우에는 부모가 말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짧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부모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여 이야기가 중복되거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중간에 서로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언어, 태도, 행동에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⑥ 유아의 발달 및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교류하기

- 유아의 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찰일지, 행동발달기록부, 포트폴리오, 활동사진, 검사 결과지, 생활기록부, 자유선택활동 놀이계획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유아의 발달에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눈다.
- 부모들이 유아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교사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안내해 주어야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김영옥 역, 2012).
- 부모와 상담할 때 교사의 역할은 유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이며 배려, 존중, 절충, 그리고 타협하려는 의지와 같은 태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옥 역, 2012).
-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기본생활습관, 인성과 관련된 덕목은 별도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내면화되므로 교사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질서, 청결, 절제 중 어느 한 가지부터 시작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연계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 부모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을 염두에 둔다. 즉,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나누고 베푸는 경험들에 대한 연습,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들로 채워주는 노력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서를 느끼고 따뜻한 감동과 기쁨을 갖는 기회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⑦ 효과적인 질문 사용하기

- 가능하면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부모가 좀 더 포괄적인 의견, 사고, 감정 및 관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직접적 질문의 방식보다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편안함을 준다(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OO 어머니는 이것을 좋아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어머님들이 이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나도 좋아해요”라고 반응할 수 있다).
-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의 질문만 하도록 한다.
- ‘왜’라는 질문은 질책을 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부모의 질문에 대한 단정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이 좋다.
- 교육 전문용어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되도록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⑧ 교사 및 부모의 협력적 관계 형성하기

- 바람직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또는 유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모와 협력했을 때 교사는 유아에게 최대한 그리고 최적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노력과 애씀을 어루만지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아의 발달과 교육을 위해 부모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 교사는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것이며, 부모가 도움을 원할 때에도 반드시 도움을 제공할 것임을 믿게 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부모상담의 진행과정에 따른 기본자세와 태도

앞에 제시한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부모 상담의 진행과정에 따라 교사가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옥, 2007).

〈준비〉

① 사전 준비

- 영유아에 관련된 개인별 자료를 준비해둔다(예: 관찰일지, 행동발달기록부, 포트폴리오, 활동사진, 검사결과지, 생활기록부, 자유선택활동 놀이계획표 등).
- 면담이 가능한 적절한 장소와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통신문을 통해 면담을 알린 후 부모가 가능한 시간과 면담자의 시간을 맞추어 적절한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 부모의 양육행동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배부하여 회수하고, 면담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부모의 연령, 직업 그리고 가정환경조사에서 나타난 교육적 관점, 양육태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② 당일 준비

- 면담할 부모님과 면담할 장소를 지정하고 입구에 면담 장소 안내판을 만들어 붙인다.
- 각 반 교실에 좌석을 마련한다.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약 7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

으며 정면을 마주보는 것이 이상적이나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90도 정도로 비스듬히 앉아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넓은 공간으로 인하여 시선이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칸막이 등을 쳐서 집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창밖이나 복도가 보이는 자리에 교사가 앉고 반대쪽에 부모가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상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인다.
- 면담대상 유아와 관련된 파일 등을 교사가 손쉽게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때 펼쳐 놓고 볼 수 있는 적절한 책상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깔끔한 테이블보와 화분, 꽃잎을 담은 물 컵 등의 소품을 마련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만약, 싱싱한 생화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조화를 준비하여 물 컵에 담아두어도 효과적이다. 벽에 걸린 조그만 그림이나 작은 소품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대화를 풀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부드러운 음악을 작게 틀어 놓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몇 가지의 차와 컵을 준비한다.
- 교사용 유아 개인 면담지와 펜, 학부모를 위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한다.



〈시작〉

- 상담을 시작하기 전 교사는 부모와 유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생각해 본다. ‘나는 이 부모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 ‘유아의 행동 때문에 이 부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비난하지 않는가?’ 등 부모와 유아에 대한 자신의 쌓인 감정이나 선입견, 편견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날씨에 관한 내용이나 당일 유아의 기분상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냄으로써 긴장 또는 서먹한 분위기를 완화하여 부모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교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OO를 맡게 되어” 또는 “OO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 기쁩니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
 - 부모와 만나 무슨 이야기부터 할지 교사들은 고민이 많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What do you say after you say hello?)’라는 말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즉,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 무슨 말을 꺼낼지 생각해 두어야 한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지만 날씨에 대한 인사(화창함, 비, 추위, 더위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환경 변화(꽃밭, 현관, 환경판 등), 특색 및 중점 사항(인성 교재나 동화구입, 원과 시설의 특성 및 강조점 등), 오고가는 교통편에 대해 교사가 먼저 물어봄으로써 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부모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예: 지난 주 원장님께서 인성교육을 위해 OO교재를 사주셨어요, 이번에 인성동화책을 새로 구입했어요 등).
- 상담을 할 때 교사는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기록해 두도록 한다. 기록이 어려우면 짧은 메모라도 하였다가 정리하도록 한다.
- 상담 일정 계획표에 따라 유아와 관련된 사전 준비 파일 내용(관찰일지, 행동발달기록부, 포트폴리오, 활동사진, 검사결과지, 생활기록부, 자유선택활동 놀이 계획표 등)을 참고자료로 삼아 상담을 실시한다. 이때 유아의 발달상황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설문지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부모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언급하는 것도 필요하다(예: 국가나 기관의 교육정책, 누리과정 내용, 평가지침 등).

〈전개〉

- 유아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바람직한 행동이나 좋은 점에 대해 먼저 말한다.
- 부모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때, 예를 들어 부모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이가 특하면 화를 내서 걱정이예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원에서는 안 그런데요”라고 일축하기보다는 주로 언제, 어디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데 대해 자세히 물어봄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교사가 ‘공격적’, ‘산만’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로 유아를 고정화시킨다면 부모는 마음의 큰 상처를 받게 되며 유아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판단하여 문제시하게 되므로, 그것에 대처될 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을 찾아 부모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예: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좀 한 눈을 팔 때가 있어요 등).
- 부모가 면담 도중 면담내용과 관계가 적은 의견을 말할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과 함께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고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강조하되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 교사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태도(예: 손이나 다리를 꼬거나 턱을 고이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자세)를 삼간다.
- ‘왜’라는 질문은 질책을 당하는 느낌을 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왜’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로 바꾸어 질문한다.
- 부모를 정면으로 대하고 부모와 눈을 마주치면서 부모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종종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 진행을 부드럽게 한다.
-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밝고 명랑한 표정을 지으며 부모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말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비판하거나 평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투는 되도록 피한다.
 - 부모보다 앞서서 유아의 행동을 예견하는 듯한 메시지(예: OO가 원래 그래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 유아의 문제 행동 상황을 단언하는 메시지(예: OO는 --가 분명합니다. 매번 그렇더라고요)
 -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메시지(예: 제 생각은 어머니와 다릅니다)
- 유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부모의 몫임을 명심하여 부모 대신 앞선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한다.



〈마무리〉

- 서두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시간(약 30분 정도)후에 면담을 종료한다. 마무리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끝나지 않도록 한다.
- 부모가 이야기했던 생각과 기대를 간결하게 정리해 준다.
- 상담을 마무리할 때는 발전적이고 지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 언제든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교사가 “앞으로 OO에 대해 계속 눈여겨 볼게요”등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모와 소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부모들이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여러 부모를 상담하지만 부모는 한 사람이므로 여럿 중에 하나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한 사람 한사람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담이 끝날 무렵 물건을 치운다든지 찻잔이나 티백 등을 정리하는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상담이 끝나면 면담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중에 정리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분량이 많아지면 쉽지 않으므로 그날그날 정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평가 및 지속적인 피드백〉

- 상담이 끝난 즉시, 교사는 상담일지를 작성한 뒤 개인별 상담내용의 과정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다음 면담에 활용하도록 한다(예: 문제행동에 대한 후속 상담에서는 그 문제행동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관찰하여 변화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 반드시 메모 또는 사진으로 남겨놓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상담은 정해진 날짜나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메일, 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영옥(2007). 부모교육.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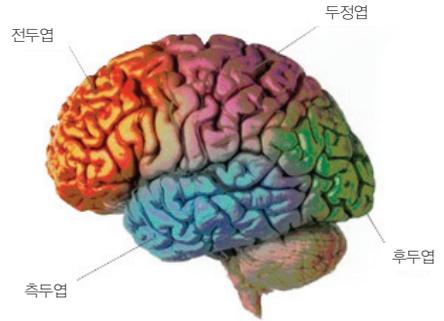
김영옥 역(2012). 유아교사의 새로운 도전: 처음처럼(Waters, J 저). 공동체.

김영옥(2012). 삼성어린이집 인성교육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

유아기 인성발달

| 뇌는 어떻게 발달할까요? |

- 뇌는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발달합니다. 그러나 과잉 자극이나 부적절한 자극에는 뇌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 뇌 발달은 앞 쪽(전두엽) 방향에서 뒤 쪽(후두엽)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정한 뇌 기능은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

	주 발달 부위	기 능	지원방안
만 0~3세	뇌의 전 영역	정서발달	오감 자극
만 3~6세	전두엽	인간성	예절과 인성교육
만 6~12세	측두엽	언어기능	다양한 언어 자극
	두정엽	물리적 수학적 기능	
만 12세 이후	후두엽	시각기능	자녀 이해

|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

- 유아기에 우리 아이의 인성은 전두엽과 함께 발달합니다.
- 유아기는 뇌 발달 단계 중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 전두엽은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 주의집중력, 감정을 조절합니다.
- 전두엽은 인간성, 도덕성 등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 유아기에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인간미 있는 바른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유아기 인성발달’은 이화여대 김희진 교수의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프로그램 및 연수자료 집(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 발췌하였음.

1. 우리 아이의 정서 발달과 인성

| 정서란 무엇인가요? |

- 정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의미합니다.
- 정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보편적인 정서에는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흥미, 수치심 등이 있습니다.

| 우리 아이 인성에 왜 정서 발달이 영향을 미칠까요? |

- 정서 발달은 나 자신을 위해 좋습니다.
 -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됨
 -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됨
- 정서 발달은 원만한 대인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나의 요구와 의도를 남에게 전함
 -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읽음으로써 타인의 요구와 의도를 알게 됨

⇒ 이렇듯 정서 발달은 우리 아이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기에 중요합니다.



| 연령별 정서 발달과 인성과의 관계 |

연령	발달 특성	관련 인성요소
만3세	분노가 일어나면 땅바닥을 툇굴기도 한다.	예절, 질서, 절제, 소통 등
	질투가 심해진다.	자존감, 이해, 존중 등
	자기주장이 강해진다.	자아개념, 소통, 배려 등
	말이나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자존감, 소통, 공감 등
	자기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	책임, 절제, 인내, 자존감 등
만4세	표정, 태도, 동작 등이 풍부해진다.	소통, 정서 이해, 절제 등
	자신이 성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소통, 책임 등
	자신감이 증가한다.	자존감, 자아개념 등
	성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자 한다.	책임, 자존감 등
	인내심이 적어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	인내, 질서, 절제 등
	화내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절제, 인내, 긍정적 사고 등
	성취에 대한 기쁨을 느낀다.	자존감, 책임, 자아개념 등
만5세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흥미가 높다.	자존감, 책임 등
	성취나 경쟁적 욕구가 충족된 일에 만족한다.	자존감, 협동, 배려, 질서 등
	도덕의 규칙과 행동에 많이 익숙해진다.	질서, 양심, 도덕, 책임, 절제, 정직 등
	다른 사람의 정서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공감, 소통, 이해, 배려, 협동 등



2.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인성

| 사회성이란 무엇인가요? |

- 사회성은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 유아는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행동을 배웁니다.

| 우리 아이 인성에 왜 사회성 발달이 영향을 미칠까요? |

- 유아기는 양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양심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유아들은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함
 - 규칙에 익숙해지며 규범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자 함
- 유아기는 최초의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친구에 대한 관심 증가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 다른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술 향상

⇒ 이렇듯 사회성 발달은 우리 아이가 양심이 생겨나며, 사회적 약속을 인지하고, 지속적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기에 중요합니다.



| 연령별 사회성 발달과 인성과의 관계 |

연령	발달 특성	관련 인성요소
만3세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자 노력한다.	소통, 공감, 자아개념 등
	남을 위할 줄 알게 된다.	배려, 나눔, 협동, 동정, 공감 등
	친구와 활발히 놀기 시작한다.	협동, 소통 등
	친구와 놀잇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배려, 나눔, 공감, 공평, 절제 등
	친구와 함께 놀이하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여 싸움이 일어난다.	소통, 절제, 협동, 질서, 공평 등
만4세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한다.	책임, 절제, 인내, 자존감 등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배려, 소통, 공감, 이해 등
	친구와 싸울 때도 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배려, 소통, 질서, 책임, 이해 등
	친구의 불행에 동정을 나타낸다.	배려, 공감, 이해, 존중 등
	친구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놀이를 한다.	협동, 배려, 나눔, 질서, 책임 등
	필요한 규칙은 스스로 따른다.	질서, 책임, 자아개념, 양심 등
만5세	집단 활동에 대한 즐거움이 증가한다.	협동, 배려, 질서, 책임, 공평 등
	양심이 발달하여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양심, 정직, 질서, 공평, 정의 등
	규칙 준수에 대한 의미를 배운다.	양심, 정직, 질서, 공평, 정의 등
	대인 관계가 차츰 확대된다.	배려, 나눔, 협동, 공감, 이해 등
	협동놀이가 증가하여 협동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협동, 책임 등
	성역할을 배우고 문화적 관습을 익힌다.	질서, 책임, 절제 등



3.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과 인성

| 인지란 무엇인가요? |

- 인지는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 기분 좋은 경험, 생각, 느낌은 유아의 인지를 발달시킵니다.
- 우리 아이 인성에 왜 인지 발달이 영향을 미칠까요?
- 유아기 인지 발달의 핵심은 판단력과 사고력입니다.
 - 유아기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
 - 유아는 차츰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됨
- 유아는 자신, 타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 생각에 대한 생각(초인지)이 발달하기 시작
 - 자기 자신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음
 - 차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음

➔ 이렇듯 인지 발달은 우리 아이가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판단력의 기초가 되기에 중요합니다.



| 연령별 인지 발달과 인성과의 관계 |

연령	발달 특성	관련 인성요소
만3세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다.	존중, 이해 등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되풀이 한다.	양심, 정직, 공평, 존중 등
	상상 놀이가 나타난다.	공감, 소통 등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보거나 만지지 않아도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음을 안다.	공감, 이해 등
만4세	원인과 결과를 때로 혼동한다.	질서, 이해 등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배려, 존중 등
	차분히 이야기하고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협동, 배려, 절제 등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이 많아진다.	양심, 도덕, 질서, 이해 등
	믿음과 소망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안다.	책임, 절제, 인내, 자아개념 등
	친숙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공감, 이해, 배려 등
만5세	다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존중, 배려, 공감, 이해 등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배려, 존중 등
	궁금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탐구력이 증가한다.	자아개념, 책임 등
	점차 논리적이 되어 간다.	질서, 공평, 정의 등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동기, 능력 등에 의해 성취도가 영향을 받는다.	자아존중감, 책임, 절제 등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2부

인성덕목별
인성기록별

문제행동 이해 및 대처방안

함께하는 아이

1. 협력하지 않고 혼자만 노는 아이

| 아이의 발달에 따른 놀이 형태 |

유아기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와 함께 놀이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놀이하거나, 자신의 놀이감이나 놀이방식에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놀이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나누고 협력하면서 놀이하는 것은 유아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친구들과 협력해서 놀이하려면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한다.



| 아이는 왜 혼자만 놀이하려고 할까? (문제행동의 원인 이해) |

- 친구에게 양보하고 장난감을 나누는 것이 싫어서
-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친구보다는 내 생각대로 놀이하기 위해서
- 특정 장난감이나 놀이 영역에 집착해서
- 소극적인 성격이라 친구들의 강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서(친구로부터 거절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함께 놀이한 경험이 적어서
- 의사소통 기술이 미숙해서
-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아서
- 발달상의 문제 때문에(자폐증, 발달지연 등)

| 협력하지 않고 혼자 놀이하게 만드는 가족 환경 |

- 친구들과 함께 놀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번거로워하여 싫은 내색을 하는 경우
- 유아의 놀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 부모가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
- 매사 유아의 뜻에 따르고 무조건 허용하는 경우
-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유아의 행동에 무관심한 경우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다른 아이들처럼 해보라고 으박지른다(예: 너도 저렇게 해봐).
-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혼낸다(예: 너는 6살이나 되었는데 양보도 못하니?).
-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나 말을 무시한다(예: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유아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하여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보다는 혼자 놀거나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각자의 놀이에만 몰두하기 마련이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억지로 함께 협력해서 놀이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놀이의 관심이 친구로 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반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칭찬해준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친구 곁으로 다가가거나 친구의 요청에 흔쾌히 장난감을 나누어주는 경우 등을 잘 포착하여 칭찬해 주도록 한다.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협력하여 잘 놀이하는 다른 유아를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간 이외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한 경험은 친한 친구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일단 놀고 싶은 친구가 생기고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놀이와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조율하여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할 기회가 생긴다.
- 협력하여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 “도와줄까?”, “같이 해보자.”,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도와줘서 고마워.”, “너랑 같이 놀아서 재미있었어” 등의 말을 한다면 도움을 주고받을 때의 기쁨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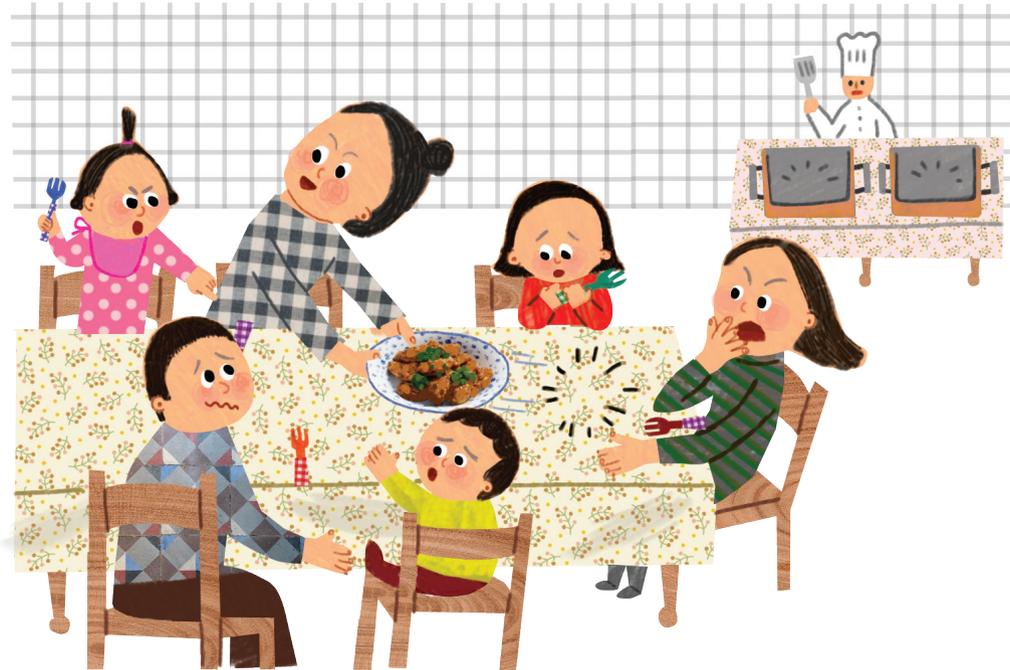
- * 같은 또래와 잘 어울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조절하고 친구들의 마음도 잘 헤아린다는 것으로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 *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유아가 함께 협력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세요.

2. 이기적인 아이

| 이기적인 아이 |

유아기는 자아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누군가 자기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행동할 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차례차례 줄서기를 해도 어느새 맨 앞으로 새치기해서 밖으로 나가는 아이, “내가 맡았어!” 하며 친구가 놓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고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아이, 미술영역의 점토를 한꺼번에 꺼안고 혼자만 차지하는 아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고집부리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아이는 자칫 이기적인 아이로 비춰질 수 있다.





| 아이는 왜 이기적인 행동을 할까? (문제행동의 원인 이해) |

-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 자신의 소유물에 손실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 나의 것과 남의 것, 공동의 것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해서
- 타인과 나누고, 양보하고, 돕는 경험이 부족해서
- 어떤 놀이나 놀이감 등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 급한 성격이어서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 지나치게 행동을 억압받아 욕구 불만과 반발심이 생겨서

|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족 환경 |

- 유아의 욕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는 경우
- 동생이 생긴 경우
- 소유물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동생/형의 장난감과 나의 장난감,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 유아들이 사용하는 물건)
-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예절과 규칙을 지키기 않는 경우
- 협동보다는 경쟁심을 유발하는 부모의 가치관
- 질서나 예절, 나눔과 관련한 교육 부족
- 가족 간 배려, 나눔, 협동하지 않는 분위기인 경우
- 사사건건 행동을 규제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의 태도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문제상황을 원천봉쇄한다(예: 욕심내서 혼자 점토를 다 가지고 놀거면 다 치운다!).
-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혼낸다(예: 새치기 하는 못된 아이구나!).
-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기보다 행동을 금지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예: 그러면 안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 일관성 없는 태도로 대처한다(어떤 경우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꾸지람을 듣는 경우).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의 마음을 읽도록 한다. 놀이에 조금이라도 빨리 참여하고 싶어서 차례 지키기가 힘들었던 유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리를 빼앗긴 친구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

각해 보도록 한다.

- 친구들을 배려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미술영역에서 5~6명의 유아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재료를 나누어 주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 보거나 동극 머리띠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두어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 친구들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아기의 특징이므로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뜻대로 놀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지며 화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나 오늘은 꼭 엄마 역할 해 보고 싶었어. 매일 너만 엄마 하니까 속상했어.”, “나도 놀고 싶어. 같이 하자.”, “나 조금밖에 못놀았어. 나 놀고 너한테 줄게.” 등의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 유아의 욕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고 지나치게 유아에게 맞추어 생활하는지 살펴보세요.
- *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특정 물건에 집착하거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 *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돕는 행동을 보일 경우 이 점을 강조해서 칭찬해주세요.

3.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아이

| 아이의 발달과 낭비 |

유아기는 표현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시도하여 자신을 확인한다. 그러한 통로로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하여 그리거나, 접다 만 색종이를 여러 장 쌓아놓고, 화장실의 휴지를 끝도 없이 풀어 버리곤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유아를 절약이나 경제적 개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험과 표현의 욕구에 가득 찬 유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적으로 낭비하게 되므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면서도 표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아이는 물건을 왜 낭비할까? (문제행동의 원인 이해) |

- 함께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 물건이 풍족해서
- 친구나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물건을 소중히 다룰 여유가 없으므로
- 절제력이 부족하여 일단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다른 놀이가 부족하므로

| 낭비하게 만드는 가족 환경 |

- 낭비할 때마다 꾸지람하는 경우
-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다 사주는 경우
- 어른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거나 낭비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
- 집안에서는 아끼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낭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비난한다(예: 한 장 씩만 쓰랬지? 너 뭐가 되려고 엄마말 자꾸 안 듣니?).
- 낭비행동을 할 때마다 아이를 혼계한다(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낭비한 물건을 치워버린다(예: 자꾸 약속 안지키니까 아예 치워버려야겠다).
- 물건의 사용량을 통제한다(예: 도화지 한 장만 줄거야).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마음껏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물건을 난폭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한다. 충분히 계획해서 놀이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충분한 재료를 준비해 준다.
- 직관적 사고를 하는 유아기의 발달 특징을 이해한다. 유아들은 좋던 나쁘던 간에 그림을 여러 장 그려 쌓아놓거나 휴지를 많이 뜯어 모아 놓은 것에 성취감을 느낀다. 낭비하는 행동을 한다고 유아를 미워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 공동의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교실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여러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내가 혼자 다 써버리면 다른 친구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을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아껴 쓰고 물건을 소중하게 다른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도록 한다. “한 장만으로도 손을 다 닦을 수 있었네.,” “친구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두 개만 사용했구나.” 등 유아가 노력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준다.
- 평소 물건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폐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조각 종이에도 그림을 그려보는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절약하도록 돕는다.
- 낭비될 수 있는 물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바쁜 일상 중에 물건을 낭비하는 유아를 일일이 관찰하기는 어렵다. 종이, 휴지, 물 등 평소에 낭비하기 쉬운 물건들은 관리하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 어른들의 지도 하에 아껴서 사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 물건을 낭비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장래에 금전에 대해서도 낭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아껴 쓰고 절제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 주세요.
- * 감각적 경험을 돕는 놀이를 충분히 제공해주세요.
- *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의로운 아이

1. 거짓말을 하는 아이

| 아이의 발달과 거짓말 |

유아들은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공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아이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개가 사실에 대한 단순한 불평,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는 것,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 어떤 잘못되어진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유아는 아동에 비해 기억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기억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하다. 예를 들면 낮에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는 거짓말이 아닌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아이는 왜 거짓말을 할까? |

- 무의식에 의한 거짓말로 현실과 공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어린 유아들의 고의성이 없는 거짓말)
- 거짓말을 놀이로 생각하고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 부모나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래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 꾸중이나 벌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 이타적인 의도로(악의적이지 않은 거짓말)
- 자기를 과시하여 인정받기 위해서

|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환경 |

-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 생각없이 거짓말을 시키기도 한다(예: “엄마 찾는 전화오면 엄마 없다고 해”, “엄마 말 안들으면 버리고 간다”).
- 다그치거나 자주 화를 내는 부모의 아이들은 당장 부모의 화로부터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다.
- 무질서한 환경을 제공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쓰게 된다.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권력을 사용한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려고 권력을 사용하여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강압적인 지시와 체벌을 자주 사용한다.
- 관심과 애정철회를 통해 아이에게 거부당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아이에게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방임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 아이를 불신하고 변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고 일방적으로 대한다.
- 행동이 아닌 아이 자체를 비난한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화하지 않고 아이 자체를 비난하는 대화로 상처를 준다(예: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너 아주 못된 아이로구나).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부터 내면 아이는 진실을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 부모 자신부터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한 태도로 잘못된

점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 거짓말에 대한 훈육기준을 세우고 일관된 태도로 대한다.
- 유아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 칭찬을 하여 유아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 의도적인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켜준다. 아이로 하여금 왜 자신이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실수한 것은 처벌하지 않으나 의도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 평상시 부모가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직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 유아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나눈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나이에 따라 거짓말의 의미가 달라요.**

현실과 공상을 구분 못하는 만 3세는 주로 원하는 것을 얻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관심받고 싶은 의도를 충족시켜 주고 아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 5세 아이는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주로 거짓말을 하며 충분히 옳고 그름을 구분할 정도의 사고능력이 생겨나는 시기이므로 거짓말이 잘못된 행동임을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 아이와 함께 읽어보세요**

뽀뽀뽀 구조대(책먹는 아이/ 책먹는 아이 편집부)

또또가 달라졌어요(키득키득/ 안나 카살리스)

거짓말은 무거워(휴이넵/ 유계영, 지경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참돌어린이/ 조지혜)

거짓말이 찰싹 달라붙었어(아이세움/ 신순재)

2. 고자질 하는 아이

| 아이의 발달과 고자질 |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개념의 학습 즉,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기의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란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유아기는 가치관 발달의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 이유는 성인의 칭찬과 꾸중과 같이 객관적 도덕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만 4~5세 아이들은 어른의 규칙을 따르는 데 민감하고 그것을 어기면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느낀다.



| 아이는 왜 고자질을 할까? |

-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 주도권을 얻으려고
- 아이에게 상처 준 다른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리고 어른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 자기주장을 펼치는 기술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 충동조절력이 부족하여
- 또래들과 잘 어울리거나 소속되지 못해서
- 강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져서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규칙을 지키고 싶어서
- 고자질이 부모에게 도움을 주어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느끼므로

| 고자질을 하게 만드는 환경 |

- 과잉보호하는 부모 아래서 또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은 상호작용 기술이 부족해지고 어른에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는 부모는 매사를 옳고 그른 것으로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으로 구분하는 판단을 지나치게 요구하여 자기중심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고자질을 강화한다(예: 아이가 고자질을 했을 때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런 친구랑은 어울리지 말아라”와 같이 아이의 고자질에 긍정적으로 반응).
- 아이의 고자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아이의 고자질 속에는 관심받고 싶다는 욕구가 담겨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런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널 미워하고 친구도 없을거야”라고 반응하며 지적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아상만 갖게 만든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고자질하는 유아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 ‘고자질’과 ‘사실대로 말하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고자질이 허용될 때와 허용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고자질’과 ‘사실대로 말하기’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한다.

-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자질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단호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 일관성있는 규칙을 적용한다. 진정 아이의 변화를 원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알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아이가 반복적으로 고자질을 하는 문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역할놀이로 알려주세요.

* 아이와 함께 읽어보세요

쫄르르 토토(상상스쿨/ 이상희)

선생님 재가 그랬대요(통큰세상/ 점프점프 성장계발 동화시리즈)

내 이름은 김창(문공사/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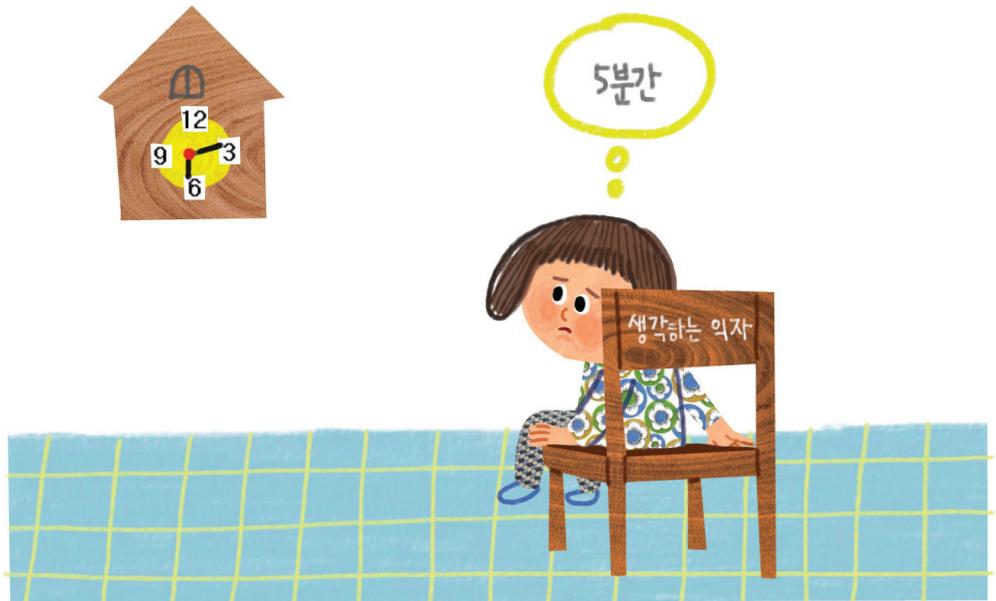
3.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

| 아이의 발달과 거짓말 |

5세 이하 아이들은 그들의 감정 조절력이나 인내력의 수준이 물건을 보면서 자기 욕구를 참을 만큼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추상적 약속보다 현실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더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고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해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속을 정하고 지시하는 것은 어린 유아에게는 힘든 일이다.

| 아이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

- 현재 자신의 욕구 충족이 중요한 아이
 - 부모와의 약속보다 당장 눈 앞의 장난감을 사고 싶은 욕구가 크다.
- 아직은 약속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아이
 - 약속을 왜 해야 하는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를 수 있다.
- 다른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 귀 기울이지 않는 아이
 - 아이가 관심이 없는 약속을 정할 때 잘 듣지 않거나 몇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듣는다. 어떤 아이들은 결국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을 할 때만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환경 |

-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 아이와 “집에가면 맛있는 것을 만들어줄게”, “이것을 다 끝내면 장난감 사줄게”라고 약속해놓고 부모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다.

- 화가 나면 과한 협박과 엄포를 자주 하는 부모

- 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 여기에 버리고 갈 거야”라고 하거나 컴퓨터와 TV에 빠진 아이에게 “당장 컴퓨터와 TV를 없애 버린다”라고 지키지 못할 협박과 엄포부터 늘어놓는 부모가 있다. 이는 앞으로 부모의 말에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금지와 요구를 많이 한다.

- 평소애 아이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금지사항을 많이 늘어놓게 되면 부모의 “안돼”, “이것을 해”라는 지시에 화를 내거나 저항하게 된다.

- 무조건 화만 내고 아이의 감정에 대해 수용하거나 표현해 주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지시하고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킬 때 화를 내면서 아이가 인내하려는 노력에 대해 수용하거나 말로 표현해 주지 않는다.

- 약속에 대해 일관성 없이 대한다.

- 반드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아이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백화점에 가면 장난감은 한 개만 사야한다”고 약속을 정하고 아이가 백화점에서 여러 개의 장난감을 사겠다고 떼를 쓰며 울 때 창피하다는 생각에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이것은 아이에게 ‘조르고 떼를 쓰면 들어주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곧 약속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부모가 먼저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준다.

- 약속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며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한다.

- 아이의 나이에 따라 약속의 정도를 정한다.

-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 부모는 일관성있는 자세를 보인다.

-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규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아이를 신뢰하고 함께 규칙을 정한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아이와 함께 읽어 보세요

민들레의 약속(지경사/ 크니스터)

할아버지의 약속(느림보/ 손정원)

꼭 꼭 약속해요(효리원/ 이은경)

약속할게, 꼭 너를 찾을 거야(문학수첩 리틀북스/ 헤더 패트리샤 워드)

너는 이런 동생 있니?(아이마을/자신만만-사회성 동화시리즈 중)

존중하는 아이

1.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아이

| 유아 발달과 생물에 대한 개념 |

- 종종 개에게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리는 아이, 곤충을 보고는 밟거나 침을 뱉는 아이들이 있다. 유아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그러나 곤충 등의 동물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어,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 사실 유아는 곤충 등 동물의 유해함이나 유익함에 대한 지식이 없다. 따라서 유아가 이러한 주위 생명체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이나 행동은 주위 성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 유아는 생명체에 대해 주로 동물과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즉, 생명체란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동물을 생명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체란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유아에게 식물이나 동물도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생명체가 죽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아이는 왜 생명체를 경시하는 행동을 할까? |

- 자녀에게 동물이나 곤충의 위험성이나 유해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
- 호기심이 있으나, 동물이나 곤충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 주위의 성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경우
- 다른 유아들이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 심리적인 욕구불만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심리적 욕구불만이나 노여움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
- 돌발적으로 놀라서
- 부모가 무절제하게 허용적이어서, 자녀가 궁금해 하는 행위는 무엇이건 허용한 경우

| 생명체 경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 및 환경 요인 |

- 부모가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한 경우
- 부모가 평소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
- 부모가 동물을 보고 더럽다거나 징그럽다는 등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
- 부모가 아이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곤충을 죽이는 경우
- 부모가 야외에서 꽃을 보면 꺾어서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
- 부모가 동물이나 곤충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유아가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자녀의 행위를 보고도 관심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다.
- 과장되게 놀라면서 아이를 심하게 야단친다.
- 곤충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 자녀의 호기심 만족을 위해 곤충을 잡아와서 곤충집에 두고 관찰하도록 한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곤충을 관찰하거나 동물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 작은 곤충이나 흔한 꽃들도 생명을 가진 귀중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준다.
- 곤충과 동물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해로운 점, 이로운 점)에 대해 알려준다.
- 야외에서 곤충이나 꽃을 관찰한 후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오도록 지도한다.
- 아무 이유 없이 곤충을 죽이는 경우, 생명의 소중함을 설명해 주고 나쁜 행동임을 알려준다.
- 아이의 행동으로 곤충 등 동물이 죽게 되거나 다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해준다.

- 자녀가 어떤 성격인지, 즉 무서움이 많은지, 용기가 부족한지 등 아이의 특성에 맞게 곤충 등 동물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적용해 보도록 격려해 준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 곤충 등 동물에 대한 유아의 행동은 대부분 성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므로, 자녀 앞에서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 * 때로는, 누적된 스트레스나 불만이 동물을 때리거나 곤충을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잘 관찰하여 원인을 찾아보세요.
- * 작은 화분을 사서 자녀에게 책임 지우고 돌보도록 하는 것도, 생명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동물원이나 곤충 체험관을 함께 현장체험을 가거나 관련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곤충 등 동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아이

| 유아 발달과 공동체의식 |

- 종종 유아가 자기 말만 다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듣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유아는 아직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한다.

| 아이는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까? |

-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하여
- 다른 유아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을 모르거나 부족한 경우
-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
-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 주위 성인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 다른 유아와 다투거나 이를 해결하는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
- 부모가 과잉보호하여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주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만족하게 되어서

|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 및 환경 요인 |

- 자기 아이 위주로 행동하고 다른 집 아이는 무시하는 경우
- 부모가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서, 자녀가 자기의 요구나 행동의 적절함을 검토해 볼 기회를 없애버리는 경우
- “네가 최고!” 라고 자기 아이만 떠받드는 경우
- 평소에 자녀 앞에서 주위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부모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자녀가 다른 아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고도 모르는 척한다.
- 자녀가 다른 유아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서만 야단치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언질을 준다.
-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 욕박지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야단친다.
- 다른 유아의 기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야단친다.
- 자녀의 행동 때문에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자녀를 못된 아이라고 비난한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자녀가 다른 유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설명해준다.
- 다른 유아를 마음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 유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
- 유치원이나 이후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행동이나 말)를 자녀에게 보여준다.
- 자녀에게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자녀와 함께 가까운 어른이나 친구들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이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최우선 순위로 지도해주세요.

* 외동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혹시 자녀가 이기적이고 무례한 아이로 자랄까 염려되어, 지나치게 엄격하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양보하도록 지시하기 보다는, 그 이유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자녀가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세요.



3.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아이

| 유아 발달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 |

- 누구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상황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이는 유아도 마찬가지이다. 유아는 얼굴색이나 머리색을 기준으로 인종을 구분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음식이나 복장, 처음 듣는 말,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지 못하기에 어색해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 유아는 성인과는 달리 호기심이 많고 편견이 없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해 경험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흥미를 가지고 친근감을 갖게 된다.

| 아이는 왜 타문화를 경시하는 행동을 할까? |

- 호기심을 느끼나 이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 주위 성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
- 어색하여서
- 처음 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어서 두렵기 때문에
- 부모가 평소에 특정 문화나 특정 인종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말을 들은 경우

|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 및 환경 요인 |

- 부모가 타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없어 두려움을 가진 경우
- 부모가 특정 타문화에 대해 편견이나 우월감을 가진 경우
- 부모가 타문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경우
- 부모가 타문화에 대해 개방성이 부족한 경우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른 아이를 놀리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한다.
- 이유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야단친다.
-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며 나쁜 아이라고 야단친다.
-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 으박지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야단친다.
- 자녀의 행동에 동조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나라나 문화마다 인종, 언어, 음식, 풍습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 다양한 문화 및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 자녀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풍습이나 전통에 대한 동영상자료나 그림책을 보며, 다른 점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수입품이나 수입농산물을 보여 주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이야기해 준다.
-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인의 축제를 자녀에게 소개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례를 알려준다.
- 화폐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세계화시대에 유아가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아가 '다른 것', '낯선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면,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개방성을 갖게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인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세요.

* 유아가 다른 문화를 경시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싫어한다면, 이는 주위에서 보고 들은 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스스로 타문화와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자아가 건전한 아이

1. 화가 많은 아이

| 화가 많은 아이 |

- 5살 헤민이는 짜증이 많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부린다. 조금만 엄마가 혼을 내면 뿌루퐁해져서 쉽게 화를 풀지 않는다. 특히 동생에게는 더욱 민감해져서 조금만 자신의 물건을 만져도 화를 내고 때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막상 집 밖에 나가면 오히려 친구들에게 ‘싫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6살 훈영이는 유치원에서 공격적인 아이로 통한다. 친구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주먹이 먼저 나가고 선생님이 혼을 내면 “아, 왜요!”라면서 반항하기 일쑤이다. 집에서도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엄마가 말하는 것에 말꼬리를 잡는 통에 엄마는 훈영이와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 7살 세영이는 엄마가 뭔가를 지시하면 그 자리에서는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즉각적으로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 항상 엄마가 몇 번 이야기하다가 지쳐서 크게 화를 내야만 “하면 되잖아”라고 화를 내고 투덜거리면서 어기적대며 시킨 일을 억지로 한다. 매일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 세영이 엄마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보통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마음 속에 ‘화가 많은 아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 마음 속에는 이런 화가 쌓이게 되는 것일까?



| 화내는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 아이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창피하네'하는 수치감과 '그럼 그렇지, 나는 형편없네'와 같은 회의감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화'가 쌓이게 된다.

TIP.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행동인 '자율성'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발달욕구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마음껏 자기주장도 해 봐야 한다.

- 아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반적으로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했거나, 동생의 출생 및 가정의 큰 변화 등으로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했을 때

| 화가 많은 아이들의 부모요인 |

-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의 아이는, 적절한 기준을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집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집에서 더욱 심통부리는 아이가 된다.
- 아이가 원하는 바를 잘 모르고 부모가 원하는 방법대로 양육하려 한다.
- 과잉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 아이의 이런 건강한 발달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아이 마음속에는 저항심이 가득하게 되어 말을 듣는 척하면서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은근히 말을 잘 듣지 않는 수동-공격적인 상태로 성장하게 된다.
- 부부갈등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등, 적절한 표출방법과 갈등해결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TIP.

아이들이 성장하며 변화되는 속도에 맞춰 부모의 양육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1살까지는 아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알아차려서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1~3세의 아이들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잘 구분해서 훈육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6세의 아이에게는 스스로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몇 번 참다가 결국 화가 폭발되어 심하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아이들은 말을 듣는 것 같아서 반복한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아이와 싸움이 생길 때는 자리를 피한다.
 -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 화를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화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자리를 피한다.
- 말대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예: “응, 그랬어. 그래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식으로 간단히 대응하고 이야기를 마무리짓기).
- 나 - 메시지를 사용한다.
 - “그만해라”, “버릇없는 자식 같으니” 와 같은 ‘너-메시지’는 저항이나 반항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나, “엄마가 화가 난다”와 같은 나-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바로 잡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다. 맞불작전은 무용지물.
 -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놓겠다.” 등으로 아이를 그 자리에서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엄마가 이기지만, 점점 아이는 커가면서 심한 반항적 행동으로 엄마를 제압하게 된다. 이는 엄마가 아이를 세게 다루면 아이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거세게 대항하기 때문이다.
-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논박하지 않는다.
- 엄마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 엄마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더 나게 되어 아이들 앞에서 화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된다. 평상시에 엄마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 에어로빅 등 뭔가 배우기, 친구와 수다떨기 등).
- 부부갈등을 해결한다.
 - 작은 일에도 아이에게 과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게 됨으로써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에 매우 중요한 기초공사가 된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아이 마음 속에 있는 화를 잘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는 점점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의 화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주세요.

2. 자신감이 없는 아이

| 유아기 자신감 발달문제 |

- 6살 선영이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놀이치료를 받는다. 선영이는 놀이치료를 하는 중에도 한동안 긴장되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은 시도하려 하지않았다.
- 7살 민찬이는 친구들이 자신을 때리고, 놀리고,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하였다. 민찬이는 집에서든 엄마에게 계속 “나 사랑해?”를 물었고, 엄마가 조금만 혼을 내면 시무룩해지거나 커튼 뒤에 가서 숨어버리거나 울어버리기 일쑤였다.

선영이와 민찬이처럼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주변의 인정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전전긍긍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자신감이 없는 아이, 또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고 말한다.

| 유아기 자신감 발달에 대한 이해 |

이처럼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겁게 해내는 힘,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마음의 힘,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 자존감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힘으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 이것은 보통 자기 가치감, 유능감,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나누어진다.
- 자기 가치감이란, 주변에서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실수를 해서 큰 망신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 유능감이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다.
- 자신에 대한 호감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런 내가 혐오스럽거나 실망스러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다.

TIP.

아이의 긍정적인 힘을 못 찾는 엄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마가 먼저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자신감 없는 아이의 부모요인 |

- 과잉보호하는 부모
- 무관심한 부모
- 완벽주의자 부모
- 독재와 처벌로 양육하는 부모
-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부모
-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부모

| 부모의 잘못된 대처방법 |

- 도전적인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그 성과를 평가절하한다(예: “그 정도야 누구든 못해”). 자존감에 상처입은 아이는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또한 멋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절하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못살게 굴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될 일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
- 도전적인 과제를 실패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눈뜬 장님이네, 그것도 하나 못하고……” 등 비난으로 반응한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즐거워한다. 아이들은 자신을 바라봐주는 부모의 눈빛과 양육태도에서 '와! 나는 정말 소중한! 나는 정말 가치가 있어!'라는 자존감이 형성된다.
- 반복되는 성공 경험을 제공한다.
- 욕심은 줄이고 성공 경험은 늘려준다.
 - 즉,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엄마의 기대수준을 낮추고, 아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소한 일상생활을(예: 밥상 차릴 때 함께 돕기, 스스로 가방 챙기고 옷 챙겨 입기 등) 스스로 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성공 경험은 쌓이게 되고 이것은 곧 건강한 자존감으로 연결된다.
-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된다.
 - 부모가 자녀의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아이는 계속 자신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이 든다. 오히려 잘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격려하면 그 힘으로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금부터 아이가 잘하고 흥미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잘 찾아본다.
- 엄마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받고 싶은 것을 주어야 한다.
 -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이것을 꼭 받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이것을 꼭 해주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 아이가 나에게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한다.
- 아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 아이의 욕구를 잘 이해하려면 일단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귀를 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의 마음이 보이므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한다.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자존감은 인생의 버팀목이고,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또한 자기비판을 너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마음의 힘입니다. 만약,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제부터 부모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못 해낸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는 내 자신이 나는 마음에 든다'고 믿을 수 있다면,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3. 욕구 조절이 힘든 아이

| 욕구 조절이 힘든 아이의 문제 |

- 5세 영민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해야만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면 발을 구르고 울다가 토하기도 한다.
- 6세 민철이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고 크게 혼을 내도 그때뿐, 크게 혼을 내면 울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혼이 났냐는 식으로 금방 헤헤 거리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 7세 기영이는 틈만 나면 TV나 컴퓨터 게임만 한다. 요즘 들어서는 시간만 나면 엄마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려고 한다. 그만하라고 해도 ‘조금만 조금만’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 일쑤이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나 친척들 모임 등 자신을 크게 혼내지 못하는 상황에는 더 집요하게 게임하는 것을 요구하여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곤 한다.

영민이, 민철이, 기영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들이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이 있으면 엄마의 잔소리나 아빠의 화난 목소리가 없어도 아이 스스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욕구조절이 힘든 아이 이해 |

- 주의력 결핍

- 주의산만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행동상의 문제이다. 주의력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충동과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아무리 혼을 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 아이의 까다로운 기질

-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욕구를 참고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장 눈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욕구조절이 힘든 아이의 부모요인 |

-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가르치는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너무 엄격하게 제한만 많아 아이들은 마음속에 화가 많이 생기게 되어 조금만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
- 너무 허용적이어서 거의 대부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은 집에서는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반면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매우 당황하게 된다.
- 건강하게 욕구조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경우, 집 안과 집 밖에서의 행동이 달라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에 더 몰입하게 되기도 한다.

| 부모의 바람직한 대처방법 |

- 문제의 원인이 아이의 기질 때문인지 먼저 살펴본다.
 - 아이를 예민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
- 아이의 장점을 10가지 찾아본다.
 - 아이는 엄마가 인정한 만큼 성장한다. 특히 욕구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은 칭찬보다는 혼이 많이 나고, 이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 아이의 잘하는 점을 찾아 격려해주면 아이에게는 긍정적인 힘이 많이 생기게 된다.
- 아이에게 선택권을 넘긴다.
 - 엄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넘긴다(예: “오늘 이 두 가지 옷 중에 어떤 것 입을래?”).

- 부정적인 행동은 무시하고, 긍정적인 행동은 격려한다.
 -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는대로 성장하게 된다. 즉, 엄마가 아이에게 나쁜 행동만 계속 지적하고 화를 내게 되면 아이에게는 오히려 그 행동만 강화되고, 잘하는 점을 격려하면 아이에게는 잘하는 행동이 강화된다.
- 제한과 수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한다.
 - 부모님은 아이에게 다정하면서도 자기-통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즉,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아! 그렇지구나...그런데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건강한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 건강한 자기-통제감이 싹트게 된다.
- 놀이의 장점을 100% 활용한다
 - 유아기 놀이는 그 어떤 보약과도 바꿀 수 없다. 놀이는 유능감을 강화하고 보호하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운동의 장점을 100% 활용한다
 - 운동은 신체와 인지 사이의 통합을 이루는 작업으로 유능감을 강화하고 신체를 보호하고 방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친밀감 형성과 자기 조절에 밑거름이 된다.
-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예: 심호흡하기, 온 몸에 힘을 주었다가 서서히 긴장을 푸는 긴장이완훈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등).

부모에게 드리는
message card

- * 자기조절 능력은 대개 만 2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마음의 힘으로 대략 만 7세까지를 결정적인 시기로 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바람직한 목표에 맞게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훈계나 개입이 없이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을 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 * 기질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아이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냅니다. 기질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그런 행동을 하는지와는 관계없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관계있는 성격 특성입니다.
- * 좋은 행동에 주목하며 잘하는 행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MEMO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3부

상담의 실례

상담의 실례 1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이 입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아는 물론 그 유아와 함께 하는 다른 유아들과 학부모님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 달라요

* 만 5세 민우는 또래의 유아들과 다르게 느린 발달을 보이는 유아이다. 만 3세가 다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 했고, 지금도 대화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정도이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기 어려워하며 가장 편한 대상인 엄마에게 이유 모를 짜증이나 화를 내는 반응을 한다. 대부분 크게 우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1. 유치원에서 민우의 모습

-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교실로 들어오기 어려워한다(예 : ‘부끄러워 부끄러워’ 반복적으로 말함).
- 옆 친구에게 몸을 기대며 의자에 바르게 앉는 것이 어렵다.
- 교사의 묻는 말에 대답대신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혼잣말처럼 대답하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친구들의 놀이를 응시하다가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며 좋아한다(예 : 놀이감 무너뜨리기, 장난감 빼앗기, 친구 그림에 끄적거리기).
- 선호하는 음식이 뚜렷해 싫어하는 음식은 거부하며 먹지 않는다.
- 교구를 가지고 놀이하지만 교구가 바닥에 떨어져도, 다른 놀이를 하려 이동할 때도 정리하지는 않는다.
- 한 번 물입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끝내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한다(예 : 도화지 전체에 수많은 스펅글을 테이프로 붙이며 기뻐함).
-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지른다.

같은 반 친구들은 민우를 동생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놀이를 방해하며,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친구로 생각하였다. 천진한 웃음이 무척 예뻐던 민우는 같은 반의 다른 유아들과 달랐다. 교사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했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끊임없이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 달라요.”를 전해오는 민우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교사가 겪게 된 어려움

- **첫째** 일반 유아 부모님들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아요.
(예 : 선생님의 지도가 일반 부모 자녀에게 소홀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민우만의 특이한 행동이나 몸짓, 말투 등을 흉내 내는 것 등의 이유)
- **둘째** 교사로서 민우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예 : 민우에게 어떻게 하여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변화하지 않는 민우의 모습에 교사로서 실망감, 무능감, 자괴감 가지게 됨.)

3.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1) 소통의 통로를 만들다

● 민우 부모님과과의 소통

TIP.

교사와 부모는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만난 관계이므로 서로 힘들거나 바라는 점 등을 정확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의 부모는 대개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자녀의 부족함을 숨기며 대변인 역할을 하려한다거나 늦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등 불안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교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도 정확한 관찰에 근거한 판단 하에 기관과 가정의 일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민우가 보여주는 일반 유아와의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부모에게
→ 민우를 관찰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유치원에서 관찰되는 민우의 모습에 대해 부모님께 전하고 참관 하실 것(민우 어머니의 학급자원봉사자 활용)을 권유
- * 교사에게 민우의 유치원 외 다른 상황에서의 모습을 전해 주지 않는 부모에게
→ 입학 시 유치원에 제공해 주셨던 유아개인기록서의 내용을 교사가 숙지하고 부모에게 가정과 연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면담을 요청하여 민우의 유치원 외의 생활에서 민우의 생활 모습을 전달받으려 노력

● 일반 유아 부모님과과의 소통

TIP.

교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뿐만 아니라 학급의 일반 유아들 모두의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돕는 것이 다른 유아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민우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학습에 지장 받는 것은 아닌지를 염려하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 학급상황과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전달.
(예 : 학급에 도움을 주는 다른 인력(실습교사, 자원봉사자)이 있을 경우,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여 민우와 일반유아 모두에게 도움을 골고루 주고자 노력).

→ 일반 유아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 민우로 인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함께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알림.

(예 : 유아들의 상대방을 돕는 마음, 양보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의 성장이 이루어짐을 부모회나 학급모임을 통하여 알리는 기회 마련)

● 친구들과의 소통

TIP.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학급의 교사는 특정 유아로 인해 다른 유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사에게 민우 때문에 불편함을 전해오거나 무서워하는 친구에게
 - 교사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민우 자체의 모습을 인정하고 민우의 장점을 부각하여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 * 민우를 장난삼아 따라하거나 배척하고 함부로 대하는 친구에게
 - 친구들과 함께 민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 민우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민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모습을 민우에게 보여주어 민우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 주고자 함께 노력.



2) 유아의 상황을 인정하다

TIP.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는 그 아이만의 성장과정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한다. 작은 변화를 보인다고 해서 서둘러 다른 변화를 기대하는 조급함은 또 다시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좌절하게 만들어 유아와 교사 모두를 힘들게 한다. 유아 개인의 성장속도와 그에 맞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3)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TIP.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일반 유아와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학습을 함께 하는 것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으로써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 관련 서적을 찾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민우가 시작한 치료교육 교사와도 연락을 취해 공동의 노력 방법을 모색.

→ 민우, 친구들, 일반 학부모의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적인 도움 모색.

(예 : 민우 어머니가 학급에서 학급보조자 역할을 하며 함께 생활함. 모니터 교사의 지원으로 유치원 생활 속에서 민우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과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

→ 민우에게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모색.

(예 : 민우의 부모님께 교육지원청의 무상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 특수교육은 영위원회 선정 절차 후 교육비 지원받음)

4. 민우의 변화

● 친구와의 상호작용 증가(예 : 친구들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다거나, 놀이에 참여한다.)

● 상황에 맞는 언어구사 향상(예 : 교사의 말을 따라하며 “안돼?, 안되지?”라고 말하며 교사의 반응을 살피고, “이거 쥐”라고 했을 때 “안되는데..”라고 교사가 대답하자, 반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주세요.”라고 고쳐 말한다.)

● 친구들의 수용(예: 민우에게 “할 수 있어”, “괜찮아” 의 말들을 자주 해준다.)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귀찮은 존재로서의 민우가 아니라 민우도 우리 반이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사의 마음과 같이 민우의 작은 발전들을 함께 반가와 한다. 민우가 유치원

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발휘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늘 보호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 행동이 증가하고 독립된 존재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 시간들이었다.

참고자료 1. 장애영유아지원



-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

- 초,중,고, 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면제,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장애유아 의무교육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2010학년도 :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1학년도 :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학년도 :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

◆ 누가 의무교육 대상 유아인가요?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를 말합니다. 장애인 등록 유아라고 모두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아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유아는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 과정에 취학 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 일반유치원 등에 배치하게 됩니다.

◆ 집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는데 의무교육으로 바뀌어도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유치원 과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상담의 실례 2

자기 마음만 있는 유아

요즘은 많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성장하는 유아가 드물다. 외동아도 많으며 많아야 형제자매를 한 명 정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관심을 지나치게 받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더 나아가 이기적인 품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 학급에서도 유독 이기적인 사고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유아가 있다.

다 내 맘이야

* 만 5세 준혁이는 능력적으로 우수한 유아이지만, 내적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 인지적으로는 또래보다 매우 우수해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하며 친구보다 앞서 가기만을 원한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화를 못 참고 대부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마음에 상처를 쉽게 받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매우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한다.

1. 유치원에서 준혁이의 모습

-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준혁이는 너무나 얌전하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등원하며 목소리도 크지 않다.
- 교실에서 준혁이는 두려운 것도 못할 일도 없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 친구들의 시선을 끄는 행위를 하여 친구들의 반응을 즐긴다.
(예 :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과 마주 앉아 있는 교사의 뒤에서 춤을 추며 장난끼있는 얼굴로 찌푸려 유아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면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매사 남의 탓으로 돌린다.
(예 : 준혁이가 던진 블록에 친구가 머리를 맞고 울음을 터뜨리자 준혁이는 “왜 그 때 지나가고 그러냐?” 하며 울고 있는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다)
- 준혁이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이 때문에 다시 더 강도 높은 공격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 활동 중에도 자신이 지는 상황은 참을 수 없어 한다.
(예 : 게임을 할 때에도 준혁이가 소속된 팀이 지면 씩씩대며 일어나서 “○○때문이야!”라고 소리치르며 화를 낸다).
- 교사에게 말할 때 말의 형식은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의바르나 그 내용이 매우 도전적일 때가 많다.
(예 : 친구에게 상냥하게 말할 것을 이야기하자 “왜요? 저처럼 이야기 하는 아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반 선생님이 저만 왕따 시켰으니 가서 교사 그만두게 하세요”)

같은 반 친구들은 준혁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활동을 이끌어가는 준혁이기에 준혁이와 함께 놀이할 때 재미있다고 느끼며 대장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준혁이를 피해를 주는 친구로 생각하고 멀리하기도 한다. “선생님, 준혁이 가요~”, “선생님 준혁이 좀 말려주세요.” 하며 하루에도 네다섯명의 유아들이 교사를 찾는다. 준혁이의 마음 속에 꼬여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불편한 마음을 풀어 편안한 준혁이가 될 수 있을까?



2. 교사가 겪게 된 어려움

- 첫째, 자기중심적인 준혁이로 인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 : 다른 친구를 배려할 수 없기에 기다려줄 수도 양보할 수도 없으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앞서 나가야 하기에 집단활동의 잦은 중단을 가져옴.)
- 둘째,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예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음)

3.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1) 문제행동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다

TIP.

유아들이 보여주는 문제행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교사는 각 유아의 성장과정이나 현재의 양육환경을 자세히 알기 어렵기에 그 원인을 알아내기 또한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정환경(결혼가정, 이혼, 다문화가정 등), 가족의 원인(부모의 양육태도, 형제관계 등), 건강의 원인(유전, 장애, 질환 등) 등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 가정생활정보, 유치원에서의 관찰, 면담 등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봄
(예 : 준혁이의 돌발 언행으로 인해 혹여 교사와 친구들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의 걱정과 다소의 피해의식을 가진 어머니에게 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잦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준혁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어머니를 통해 얻을 수 있었음)
- 가정환경과 가족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준혁이를 이해하려 노력
 - ① 준혁과 엄마
 - 준혁이 엄마는 1살 터울의 두 형제를 키우면서 우울증을 경험
 - 교사생활을 하셨던 준혁이 어머니는 준혁이의 교육을 위해 준혁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많은 교육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함

-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준혁이는 엄마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 힘들어 함.

② 준혁과 아빠

-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으로 준혁이 아빠는 마음은 많으나 준혁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고(주말 부부), 준혁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심
- 준혁에게 아빠는 감히 능가할 수 없는 어려운 존재임.

③ 준혁과 동생

- 1살 터울의 동생은 매우 사교적이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형에게 지기 싫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 달성을 해 내는 성격임
- 한 살 차이 형이지만 형으로서의 태도를 기대 받고 있었으며 동생에게 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음.

- 기관에서 교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준혁이를 이해하려 노력
준혁이는 인정욕구가 다른 유아들에 비해 강하였고 교사와 친구들에게 받는 관심과 지지를 스스로는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음.

2) 욕구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TIP.

공격적인 행동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사회에서 용인된 방법으로 보다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해하면서 줄어들 수 있다.

- 준혁이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 또래 유아들을 공격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교사로서 준혁이의 감정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해해 주되 공격적인 행동은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시키고 준혁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
(예 : “준혁이의 마음은 알겠어. 그래서 그랬구나. 하지만 선생님 생각엔 준혁이 마음도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생각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oo도 마음 상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
- 집단활동 진행시 활동의 흐름을 방해하고 끝나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 될 때

→ 준혁이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함께 하는 재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장려.

(예 : 활동을 시작할때 먼저 기회를 주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그 간격을 넓혀간다거나, 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교사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함)

3)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TIP.

유아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문을 닫고 있는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유아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랑 가득한 화목한 가정 속에서 가능해 질 것이다.

●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노력

* 바람직한 욕구 분출 기회 제공

→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준혁이에게 다양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안으로 쌓인 긴장과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불쾌한 감정이 지속되거나 쌓이지 않도록 함

* 장점 키우기와 단점 줄이는 경험 제공

→ 준혁이의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장점은 키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면서 과잉된 승부욕을 가지지 않도록 개별적 비교가 가능한 상황보다는 힘을 모아 이루어 낼 수 있는 과업들을 제공하여 함께 하는 기쁨을 느끼며 조화와 협동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함

* 대화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격려

→ 준혁이가 화를 낼 때 그것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 범위라면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교사에게 계속 준혁이의 행동을 일일이 알리는 유아들에게도 “준혁이가 화가 나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풀릴 거야” 등으로 문제상황을 되도록 축소해 주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준혁이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을 때 칭찬해 줌

* 경청과 인내로 문제상황의 원인 이해 및 잘못된 인식 깨닫게 하기

→ 준혁이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문제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그 행동이 잘못되

있음을 이야기해주기보다는 그 행동의 원인을 알려고 노력.

- 준혁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대화를 통해 욕구불만을 풀어주도록 노력.
- 교사가 믿고 기다려 줄 것이며 공격적인 행동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지만 그로 인해 준혁이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림.
- 친구들 사이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이야기나누는 시간을 통해 깨닫도록 도움을 줌

● 가정에서의 노력

* 아이의 마음 헤아리기

- 교사가 아닌 부모로서 준혁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
(예 : 준혁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 마음이 상한 준혁이를 먼저 꼭 안아 주고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어 준혁이를 통해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함)
- 존경하지만 바쁜 아빠보다는 준혁이가 필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주는 아빠가 되고자 노력
- 동생과 경쟁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

4. 준혁이의 변화

친구들에게 과잉된 표현으로 주목받고 싶어한다거나 적개심이 많았던 준혁이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있었다. 눈빛이 편안해졌으며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준혁이에게 웃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재미있어도 웃고, 계면적어도 웃고, 예전같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댔던 상황에서도 피식 웃어 넘기기도 한다. 준혁이의 웃음은 바이러스처럼 전파한다. 친구도 웃고, 교사도 웃고, 엄마도 웃게 만든다.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4부 부록

부모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만2세~5세(24~72개월) 자녀를 가진 부모용

☞ 다음은 만2세~5세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평소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에(✓)해 주십시오.

예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힌다.	✓			
신체 크기에 맞는 옷을 입힌다.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1.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힌다.				
2.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힌다.				
3. 신체 크기에 맞는 옷을 입힌다.				
4. 아이 혼자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5. 제 시간에 밥을 먹인다.				
6. 인스턴트 음식을 주거나 사주기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인다.				
7. 영양가를 생각해서 음식을 준다.				
8. 식탁(밥상)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밥을 먹인다.				
9. 식사예절을 가르친다.				
10. 집을 깨끗하게 치운다.				
11. 집안의 위험한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치워 놓는다. 예) 세제류, 약품류, 라이터, 칼, 가위				
12. 아이만의 공간이 있다. 예) 아이의 물건(옷, 놀잇감)을 놓을 장소, 아이가 놀 공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13. 매일 자기 전에 양치, 세수, 목욕(또는 손발 씻기)을 시킨다.			
14.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씩은 아이를 치과에 데려간다.			
15. 예방주사를 제때 맞힌다.			
16. 아무 약이나 먹이지 않고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고 먹인다.			
17. 아이의 몸이 잘 자라는지 신경 쓴다. 예) 제때 걷거나 뛰는지, 키가 잘 크는지, 지나치게 똥똥하거나 마르지 않았는지			
18. 아이에게 놀이터에 나가 뛰어 놀 기회를 준다.			
19. 아이에게 나이에 알맞은 운동기구(예: 공, 세발자전거, 킥보드, 줄넘기)를 마련해준다.			
20. 주변의 다양한 환경(예: 자연, 사물, 사람)을 접하게 한다.			
21.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면 칭찬하고 더 알아보게 도와 준다.			
22. 아이가 질문하면 성의껏 대답하거나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도록 격려한다.			
23. 다양한 장소(예: 공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에 자녀와 함께 가서 돌아보며 본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24.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아이에게 말도 많이 해준다.			
25.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준다.			
26.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한다.			
27. 쓰는데 필요한 종이, 연필 등을 항상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둔다.			
28. 아이의 기분 (예: 기분 좋은지, 화났는지, 흥분했는지, 슬픈지)을 알고 그것에 맞춰 기뻐해 주거나 달래준다.			
29.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해준다. 예) 배고플 때 밥 주기, 졸릴 때 자게 하기, 힘들 때 쉬게 하기, 아플 때 돌봐주기			
30.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예) 화날 때 부수거나 무조건 참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31. 아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일은 해보게 한다. 예) 혼자 밥 먹기, 씻기, 고장난 놀이감 고치기			
32. 아이가 노력할 때 “열심히 하네!” “참 잘했어!” 같은 말을 자주해준다.			
33. 위험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			
34.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방법을 알려 준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34.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방법을 알려 준다.				
35.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36.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예: 예절, 질서)를 가르친다.				
37. 부모가 바른 행동의 모범을 보인다.				
38.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미리 알려 준다.				
39.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 준다.				
40.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로 가르친다.				
41. 아이에게 놀 시간을 매일 준다.				
42.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놀잇감을 마련해 준다.예) 퍼즐, 블록, 인형, 책				
43.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준다.				
44. 아이의 공부를 도울 때는 아이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한다.				
45. 우리 동네에 있는 기관(예: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이용한다.				

검사지 작성 결과 기록하기

사례번호					
작성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 시
작성자	() 부모 혼자 작성 () 검사자 함께 작성				

◆ 검사지 작성 결과 요약: 검사지에 표시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점수로 기록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문항 번호	점수								
1		10		19		28		37	
2		11		20		29		38	
3		12		21		30		39	
4		13		22		31		40	
5		14		23		32		41	
6		15		24		33		42	
7		16		25		34		43	
8		17		26		35		44	
9		18		27		36		45	

◆ 총점 및 역할 분야별 점수 요약: 총점 및 역할 분야별 점수 계산

역할 분야	문항 번호	점수	역할 분야	문항 번호	점수	역할 분야	문항 번호	점수	역할 분야	문항 번호	점수
의복 제공	1		건강 유지	13		언어적 지원	24		규범/가치	35	
	2			14			25			36	
	3			15			26			37	
	4			16			27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음식 제공	5		신체적 지원	17		정서적 지원	28		훈육	39	
	6			18			29			40	
	7			19			30			소계	
	8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주거 제공	9		인지적 지원	20		사회적 지원	31		놀이 지원	42	
	10			21			32			43	
	11			22			33			소계	
	12			23			34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전체 총점									사회 연계	45	
									소계	소계	

검사지 작성 중 특이 사항 :



검사지 작성 결과 알아보기

◆ 검사지 작성 결과가 부모의 양육 역할 수행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십시오.

◆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양육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총점	부모의 양육 역할 수행 정도
136점 ~ 180점	전반적으로 부모가 양육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
91점 ~ 135점	부모가 양육 역할을 보통 정도 수행하고 있음
45점 ~ 90점	부모의 양육 역할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양육 역할 수행 분야를 살펴보십시오.

- 특정 분야의 점수가 특히 높다면, 그 분야의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특정 분야의 점수가 특히 낮다면, 그 분야의 역할 수행에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점수가 높은 분야와 낮은 분야가 있다면 표시해 보십시오.

특히 점수가 높은 분야는 ⊕ 표시 / 특히 점수가 낮은 분야는 ⊖ 표시			
의복제공		정서적 지원	
음식제공		사회적 지원	
주거제공		규범/가치 형성 지원	
건강유지		훈육	
신체적 지원		놀이 지원	
인지적 지원		학습 지원	
언어적 지원		사회연계	

유아발달 체크리스트

만3세~5세(36~72개월)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

3세

3세 언어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언어	1. 길이나 높이를 나타내는 수식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길이(긴/짧은)나 높이(높은/낮은)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듣고 이에 반응할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		
	2. 입을 것, 타는 것 등 사물의 기능에 따른 표현을 이해한다.	사물의 기능에 따른 표현(입는 것, 타는 것 등)을 이해하고 말하는 지를 본다.		
	3. 안/밖, 위/아래 위치부사어를 이해한다.	위치 부사어(위/아래, 안/밖)에 대한 지시문을 이해하여 행동으로 옮길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지나치게 방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다.	대화 시 차례 지키기 규칙을 이해하여 대화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5. 글자와 그림을 구별한다.	그림책을 제시하며 “여기에 글자(또는 글씨)가 어디 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유아가 글씨를 가리키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6. 쉬운 의문사(무엇, 누구) 질문을 이해한다.	쉬운 의문사 ‘무엇’(“무엇을 타고 왔니?”), ‘누구’(“누가 울었어?”), ‘어디’(“어디 갔지?”)의 질문을 듣고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사물이나 행동을 수식하는 어휘(형용사, 부사)를 사용한다.	형용사나 부사(더 많이, 아주 큰)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8. 쉬운 의문사(무엇, 누구)를 사용하여 질문한다.	쉬운 의문사(무엇, 누구)를 사용하여 질문을 할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9. 세 단어 이상의 문장을 사용한다.	“아가, 까가 줘.”와 같은 세 단어로 된 문장이나 그 이상의 긴 문장을 사용하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10.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한다.	주격(이, 가), 도구격(로), 공존격(랑), 장소격(에서, 로) 등의 조사를 사용하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11. 상태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상태(“예뻐요.”, “미워요.”, “아파요.”)나 감정(“좋아요.”, “싫어요.”)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		
	12. 상대방이 한 말이나 지시에 거부나 부정을 표현한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아니야.”, “안 돼.”와 같은 거부나 부정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		

3세 인지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인지	1. 원모양을 그린다.	달려있는 원을 그린다. 이 때, 필기도구의 종류에는 관계없이 개폐에 초점을 둔다.		
	2. 7개 정도의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 완성한다.	7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퍼즐을 맞춘다.		
	3. 과거의 일을 세 가지 정도 기억한다.	유아는 과거의 일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한다.		
	4. 실물을 보면서 그림이나 구성물로 표현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그림이나 구성물로 표현한다.		
	5. 간단한 형태의 사람(두족인)을 표현한다.	최소 동그란 모양을 그리고 아래로 선을 긋는 두족인 형태의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그림을 그린다.		
	6. 세 가지 장면으로 만들어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의 전후관계를 안다.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도 이야기의 전후관계를 안다.		
	7.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안다.	문제의 원인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8. 위/아래, 앞/뒤의 개념을 안다.	위/아래, 앞/뒤의 개념을 말로 한다.		
	9. 새로운 사물을 관찰할 때, 여러 감각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유아는 여러 감각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0. 두 가지 속성을 포함하는 사물들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분류한다.	두 가지 속성이 있는 사물들을 한 가지 준거로 분류한다.		
	11. 4개의 사물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놓는다.	4개의 사물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놓는다.		
	12. 5개의 구체물의 수를 센다.	구체물의 수를 5까지 정확히 센다.		
	13. A-B 패턴을 2회 이상 모방한다.	교사가 만든 패턴을 따라 2회 더 반복하여 패턴을 만든다.		

3세 사회·정서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사회 정서	1. 또래의 놀잇감이나 소유물의 사용을 허락받는다.	먼저 사용하고 있는 또래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사용한다.		
	2.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친구나 교사에게 말로 표현한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낀 것을 교사에게 적절하게 말한다.		
	3.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반응한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자발적으로 돕는다.		
	4. 2~3명의 소규모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를 한다.	2~3명의 또래들과 같은 놀이에 상호작용 하면서 참여한다. 동일한 놀이주제가 없어도 적절한 행동으로 평가한다.		
	5.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로 표현한다.	자신의 이름, 성, 연령, 키, 외모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로 표현한다.		
	6.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말이나 행동으로 요청한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말이나 행동으로 요청한다.		
	7.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말로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자발적으로 사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로 표현한다.		
	8. 가상놀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역할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한다.		
	9. 학기 초에 부모와 어려움 없이 헤어진다.	학기 초에 아프거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모와 헤어진다.		
	10. 실제나 가상놀이에서 감정에 대하여 말로 표현한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11.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여 조절한다.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말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4세

4세 언어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언어	1. 안/밖, 위/아래 위치부사어를 이해한다.	위치부사어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어려운 의문사(왜, 어떻게)가 들어간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왜, 어떻게 등의 어려운 의문사가 들어간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평가한다.		
	3. 간접적으로 말해도 그 의미를 이해한다.	간접적인 표현을 듣고 이를 이해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이야기를 해주면 주요 줄거리를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익숙한 로고 글씨나, 상표, 간판을 이해한다.	익숙한 상표나 간판, 로고를 보고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6. 옷, 장난감 등의 쉬운 범주어(분류어)를 표현한다.	범주어(분류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7. 조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표현한다.	주격(이, 가), 공존격(랑), 도구격(로), 장소격(에서, 로) 등의 조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8. 상황에 적절한 시제를 사용한다.	과거, 현재, 미래 중 두 가지 이상의 시제를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사용하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9. 쉬운 음소(ㄱ ㅂ ㄴ ㄷ ㅇ)들을 문장("엄마, 아빠, 나, 덩동댕")에서 바르게 발음한다.	모든 말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10. '왜'나 '어떻게'를 사용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왜'나 '어떻게'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11. 익숙한 이야기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익숙한 이야기의 전후를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4세 인지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인지	1. 사각형 모양을 그린다.	선과 각의 모양이 정확한 사각형을 그린다.		
	2.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 완성한다.	유아는 10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의 그림을(힘들어 하지 않고)완성한다.		
	3. 과거의 일을 네 가지 정도 기억한다.	과거의 일을 최소 네 가지 기억한다.		
	4. 실제 사물을 직접 보지 않고도 표상한다.	실제 사물을 직접 보지 않고도 구성물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린다.		
	5. 얼굴 특징이나 신체 특징이 있는 사람을 그린다.	얼굴 특징(눈, 코, 입)이나 신체특징(손가락, 발가락)등이 나타나거나 그 이상의 사람의 특징을 그릴 수 있다.		
	6. 네 가지 장면으로 만들어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의 전후관계를 안다.	유아는 이야기의 전후 관계를 알고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		
	7.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모색한다.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의 방법이나 전략을 세운다.		
	8. 옆과 사이의 개념을 안다.	옆, 사이의 개념을 알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9. 새로운 사물을 관찰할 때, 감각 외에 다른 자원을 사용한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각 외에 도구를 사용한다.		
	10.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고려하여 사물을 분류한다.	한 번에 두 가지 속성(크기, 색)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1. 5개 이상의 사물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순서대로 놓는다.	사물의 속성에 근거하여(크기나 길이) 순서대로 놓는다.		
	12. 7개의 구체물의 수를 센다.	구체물의 수를 7가지 정확하게 센다.		
	13. A-B 패턴을 2회 이상 모방한다.	유아는 교사의 패턴을 따라 2회 반복하여 패턴을 만든다.		

4세 사회·정서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사회 정서	1. 또래들과의 집단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면서 놀이한다.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면서 또래들과 놀이한다.		
	2. 문제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을 알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3.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다.	또래나 교사의 요청이 없이 스스로 자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4. 의견을 나누면서 협동놀이를 한다.	협동놀이를 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놀이를 한다.		
	5. 자신의 성-안정성을 말로 표현한다.	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말로 표현한다.		
	6.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질문한다.	안전한 행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질문한다.		
	7.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말로 표현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로 표현한다.		
	8. 학습 상황에서 열의와 호기심을 보인다.	주변 환경에 대해 열의의 호기심을 보이고 반응한다.		
	9.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0.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표현한다.	친구가 속상하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11.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참고 노력한다.	나중에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참는다.		

5세

5세 언어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언어	1. 어려운 단어를 이해한다.	'가족', '우정', '평화' 등과 같은 어려운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한다.		
	2.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	비유적인 표현(~처럼)의 의미를 맞게 표현한다.		
	3. 사동사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	사동사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하여 이에 맞게 수행한다.		
	4. 농담을 이해한다.	농담을 이해하고 웃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5. '과일', '동물' 등의 어려운 범주어(분류어)를 사용한다.	상위 범주어를 이해하여 이를 표현한다.		
	6. 연결어미(-하고, -해서, -지만)가 들어간 복문을 사용한다.	연결어미가 들어간 복문을 사용한다.		
	7. 대부분의 음소들(바, 나, 디, 오, 르, 기, 지)을 문장("가방이 줄에 묶여 있대요.")에서 바르게 발음한다.	문장 속에서 모든 말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어떤 음소라도 오류가 나타나면 실패로 간주한다.		
	8. 일상 사물의 특성을 말로 설명한다.	사물의 특성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면 된다.)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9. 유아에게 익숙한 글자는 소리 내어 읽는다.	익숙한 글자들은 소리 내어 읽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10. 자신의 이름을 쓴다.	받침이 틀리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다.		
	11. 끝말잇기를 한다.	끝음절을 인식하여 끝말잇기를 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5세 인지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인지	1. 삼각형 모양을 그린다.	선과 각의 모양이 정확한 삼각형을 그린다.		
	2. 15개 이상의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 완성한다.	15개 이상의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을(힘들어 하지 않고) 완성한다.		
	3. 과거의 일을 네 가지 정도 기억한다.	과거의 일을 최소 네 가지 정도 기억한다.		
	4. 실제 사물을 보지 않고 표상한 후 이름을 짓는다.	실제 사물을 보지 않고도 그림이나 구성물을 표현한 후 그에 적절한 제목을 짓는다.		
	5. 균형 잡힌 사람을 그린다.	얼굴, 몸통, 팔, 다리 등이 균형 잡힌 사람을 그린다.		
	6. 네 가지 장면으로 만들어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의 전후 관계를 안다.	이야기의 전후관계를 알고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7.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모색한 후 적용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모색하고 적용한다.		
	8.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을 안다.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을 알고 말로 표현한다.		
	9. 새로운 사물을 관찰할 때, 감각 외에 다른 자원을 사용한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각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		
	10. 한 가지 유목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하위 유목에 따라 재분류한다.	사물을 한 가지 속성으로 분류한 후 다시 다른 속성으로 재분류한다.		
	11. 한 세트(5개)를 서열화 한 후 다른 한 세트(5개)를 첨가했을 때 한 가지 준거에 따라 배열한다.	한 세트(5개)를 서열화 한 준거에 의해 첨가된 세트(5개)를 정확하게 배열한다.		
	12. 10개의 구체물의 수를 센다.	구체물의 수를 10까지 정확히 센다.		
	13. 기본 패턴을 변형하여 다양한 패턴을 확장해 낸다.	교사가 만든 패턴 외에도 스스로 다른 패턴을 만든다.		

5세 사회·정서 발달(관찰형)

발달 영역	평가문항	관찰 기준	예	아니오
사회 정서	1. 우정의 개념을 안다.	친구와 이웃에 사는 만난 적이 있는 또래(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다른 아이)와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		
	2. 공정성을 알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정한 방법을 제시한다.		
	3. 의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을 판단한다.	동일한 행동도 의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고 판단한다.		
	4. 집단 활동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협동놀이를 한다.	역할을 분담하여 규칙 있는 협동놀이를 한다.		
	5.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말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구분하여 말한다.		
	6. 교사를 탐색과 문제해결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문제 해결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요청을 한다.		
	7. 교사와 자기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교사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8. 행동에 자신감을 보인다.	대부분의 활동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9. 사실과 환상을 말이나 행동으로 구분한다.	사실과 환상을 말이나 행동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10. 새로운 상황에서 도전과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두려워 않고 도전한다.		
	11. 타인의 숨은 의도를 공감하여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감춰진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12. 자기-안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교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안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13.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할 때 위로한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말이나 행동으로 위로한다.		

| 부표 3 | 4세용 관찰용 평가 도구의 연령별 · 영역별 기준

언어 영역										인지 영역										사회 · 정서 영역									
4세 전반					4세 후반					4세 전반					4세 후반					4세 전반					4세 후반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원점 수	표준 점수	백분 위			
11			11		86.45	12		67.74	11		71.62	11			11														
10		61.94	10		56.77	10		49.32	10		56.76	10			10													66.89	
9		52.26	9		48.39	9		37.16	9		44.59	9			9													53.38	
8	95.58		8		95.59	8		31.08	8		35.14	8			8													47.97	
7	89.46		7		91.10	7		23.65	7		28.38	7			7													39.19	
6	83.34	18.06	6		25.16	6		18.92	6		21.62	6			6													31.76	
5	77.22	12.26	5		82.11	5		10.81	5		18.06	5			5														
4	71.10	7.74	4		77.61	4		9.46	4		12.90	4			4														16.89
3	64.98	2.58	3		73.12	3		5.41	3		8.39	3			3														12.16
2	58.86	1.29	2		64.13	2		3.38	2		3.87	2			2														6.08
1	52.73		1		59.63	1		0.68	1		1.29	1			1														2.70.
0	46.62	0.65	0		48.01	0			0			0			0														

** ** ** ** ** 가정환경조사 ** ** ** ** **

	가족유형	부	모
양육 환경	부부의 결혼만족도		
	부모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육아관		
	스트레스유무		
아동	자녀의 애착형태		
	기질 발육 섭생 수면 언어 정서		
	장애여부/ 병원치료경험		
	형제관계 친구관계		
	방과후 양육 및 활동		

상담일지 예

아동 정보	성별 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 여아 - 만4세 - 신체적 접촉 (안아주기, 뽀뽀하기등) - 혼자있기
문제행동	행동묘사 자주 관찰되는 상황 행동발생전 상황 행동발생후 상황	- 손톱물어뜯기 - 혼자있는 상황 - 야단맞거나 장난감을 빼앗기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철회당할 때 - 손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물리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함
아동 발달 정보	신체발달상태 인지언어사회적발달 상태 병원진단치료경험 학습경험	- 하위30% - 하위30% - 없음 - 엄마외 양육자 없었음
아동 가족 정보	가족형태 부의 결혼만족도 모의 결혼만족도 부의 스트레스원인 모의 스트레스원인 부와의 애착유형 모와의 애착유형 부의 양육형태 모의 양육형태 부의 양육관/태도 모의 양육관/태도 형제와의 관계 또래관계	- 3인가족 - 상위 30% - 상위 30% - 잦은 출장과 회식으로 집에서 휴식하기 원함 - 거의 나홀로양육으로 지쳐있는 상태, 둘째 가지고 싶으나 경제적 여건때문에 못하는 상황 - 어릴때 부 자신의 부모관계가 소원(무관심) - 맞벌이 부모 아래 안정적 때로는 반항적 - 거의 얼굴을 못 봄, 대체로 허용적 - 때에 따라 허용적 또는 권위주의적 -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아빠는 경제적 지원 - 아이는 부모모두의 책임 - 형제 없음 - 새로 이사온 동네라 또래 친구 거의 없음
기타정보	학습기관경험 기관양육경험	- 신나는 한글나라 무난하게 하고 있음 - 예전에 엄마가 직장을 가지고 아이를 기관에 맡기려고 했을 때 아이의 심리정서적 불안행동으로 그만둔 적이 있음
원인 추정	아동 부모	-심리적 안정을 자기자극상태로 찾는듯함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가 원인일수 있음 -지나친 육아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강압적인 문제행동 진압
아동 행동 과제	아동	-문제행동수정에 대한 약속하기(1주일간 안하기) -칭찬, 격려, 보상하기(뽀뽀, 안아주기, 예쁜 손톱 만들어 엄마랑 같이 좋아하는 색으로 매니큐어하기, 좋아하는 활동 하기) -이후 수정기간을 늘린다
부모 양육 관 / 태도 과제	부모	-아이의 부모모두의 책임 -육아에 대한 의견 조율 노력
부모양육 행동 과제	부모	-주1회이상 아이와 집중적으로 놀아주기 (부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사랑받는 느낌주기; 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 -손톱물고 있을 때 다른 곳/활동에 집중시키기

상담일지

아동 정보	성별 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문제행동	행동묘사 자주 관찰되는 상황 행동발생전 상황 행동발생후 상황	
아동발달 정보	신체발달상태 인지언어사회적발달 상태 병원진단치료경험 학습경험	
아동가족 정보	가족형태 부의 결혼만족도 모의 결혼만족도 부의 스트레스원인 모의 스트레스원인 부와의 애착유형 모와의 애착유형 부의 양육형태 모의 양육형태 부의 양육관/태도 모의 양육관/태도 형제와의 관계 또래관계	
기타정보	학습기관경험 기관양육경험	
원인 추정	아동 부모	
아동 행동 과제	아동	
부모양육 관/태도 과제	부모	
부모양육 행동 과제	부모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본 부모상담가이드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유아정책연구소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임.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명림(유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은영(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미나(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집필진(가나다순)

김영실(원광대학교 교수)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김유림(아이코리아 수석교사)

박찬옥(중앙대학교 교수)

이영애(원광아동상담소 소장)

이혜경(문지유치원 주임교사)

연구협력관

안정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장학관)

장윤정(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 유아정책연구소
보급처	교육과학기술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서울청사
삽화	그림말 전화: 02)3448-5107
인쇄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